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과 우울 사이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관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형하*, 권충훈O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O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e-mail: hhlee62@kwu.ac.kr*, kwonch@kwu.ac.kr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nxiety and Depression in School Drop-Out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lasticity

Hyoung-Ha Lee*, Choong-hoon KwonO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O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본 연구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부모애착, 또래애착)와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키워드: 학업중단 청소년(School Drop-Out Adolescents), 진로불안(Career Anxiety),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자아탄력성(Self-elasticity), 우울(Depression)

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진로불안 문제로, 이는 비단 정규 교육과정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1]. 여성가족부(2018)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의 75.5%가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 대안학교, 직업기술 훈련 등 학업·진로탐색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자신감 및 자존감 부족, 대인관계 위축, 상대적 열등감 등의 심리적 불안은 더욱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편, 최근 청소년에게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개인적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실감, 외로움, 소진 등을 예방하고 안녕감을 높이며 학업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부모애착, 또래애착)와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변인으로 진로불안은 배주미 외(2010) 진로장애척도(13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사회적 관계의 하위척도로 부모애착(8문항)은 최인재 외(2012)의 척도와, 또래애착(3문항)은 이경상 외(2012)을 사용하였으며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자아탄력성(5문항)은 김지경 외(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우울(10문항)은 이경상 외(2011)의 척도로 요인적재치가 0.5이하인 2문항을 제외하고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25를 사용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Figure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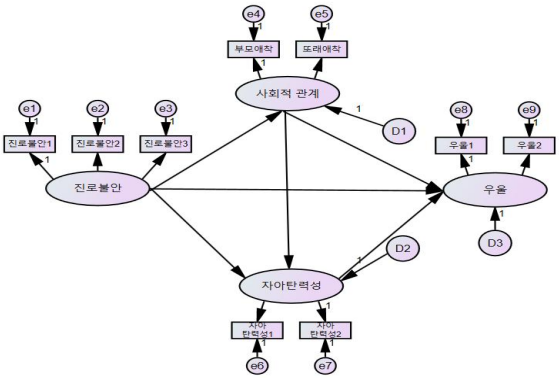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III. The Research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수	빈도(%), 명		
성별 (명)	남성	여성	
	52.5%(167)	47.5%(151명)	
나이 (명)	평균 20.67세,(표준편차, 1.119) 최소 18세부터 최대 23세(315명)		
중단/복교상태 (명)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고교 미진학/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휴학/방학 포함)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검정고시 합격 제외)
	45.6%(145)	2.8%(9)	6.0%(19)
	대학에 진학한 상태(휴학/방학 포함)	대학에 졸업한 상태	대학 중퇴
	37.1%(118)	5.0%(16)	3.5%(11)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Figure2.과 Tabl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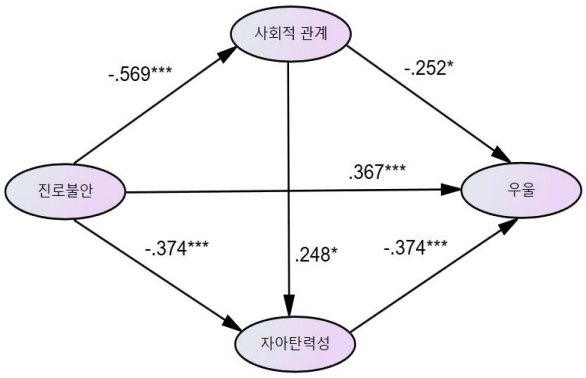

Fig. 2. Path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Table 2. Path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model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사회적 관계	<--	진로 불안	-.912	-.569	.152	-5.986	***
자아 탄력성	<--	진로 불안	-.203	-.374	.057	-3.552	***
우울	<--	진로 불안	.542	.367	.125	4.328	***
자아 탄력성	<--	사회적 관계	.084	.248	.041	2.067	*
우울	<--	사회적 관계	-.233	-.252	.090	-2.582	*
우울	<--	자아 탄력성	-1.020	-.374	.202	-5.039	***

*p<.05, ***p<.001

REFERENCES

[1] kakim, “Case study of the youths leaving schools : Search for the reason that they were able to enter the career development sta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1143-1170, 2016.

[2] hjmoon, “The Relationship of Career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mpared with General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3, pp. 445-464, 2019.

[3] Richman, J. M., Rosenfeld, L. B., & Bowen, G. L.,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Social Work, Vol. 43, No. 4, 309-323, 1998.